

영유아교사의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서 명확성에 대한 경로 비교*Received: Jan 15, 2024
Revised: May 15, 2024
Accepted: May 27, 2024감지혜¹, 채진영²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¹,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²교신저자: 채진영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321번길 63Comparison of Pathways to Self-Concept Clarity and
Clarity of Feelings Affecting Mental Well-Being
of Early Childhood EducatorsE-MAIL:
jychae@pnu.eduJi-Hye Kam¹, Jin-Young Chae²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h.D. Candidate¹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²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2023년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2023년 한국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Copyright 2024.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서 명확성 간의 관계에서 예측 변인의 선후관계에 따라 두 개의 연구모형을 구축한 후 유의한 경로를 비교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담임교사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7과 Amos 26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영유아교사의 자기개념 명확성, 정서 명확성, 정신적 웰빙은 모두 중간값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개념 명확성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는 모형에서는 정서 명확성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서 명확성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는 모형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영유아교사의 자기개념 명확성을 향상하여 정서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정신적 웰빙 수준을 증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정서적 노동강도가 심한 집단이자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돕는 영유아교사에게 정신적 웰빙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영유아교사, 정신적 웰빙, 자기개념 명확성, 정서 명확성

영유아교사는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도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이 지닌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신체적, 정서적으로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긴 영유아교사는 이 과정에서 모델링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영유아교사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역량보다 훨씬 중요할 것이다(이혜란 등,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교사는 육체적, 정신적 소진이 큰 직업군에 속하며 높은 수준의 정서 노동이 요구된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내용에 의하면, 문헌 연구 검토를 통해 밝힌 보육교사의 건강 관련 키워드 180건 중 152건이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감정노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백경흔, 정진주, 2020), 이러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팬데믹으로 영유아와 학부모의 불안감이 더해져 그들의 정신건강은 더욱 위기에 처해있었다. 최근 교직 현장에서는 그동안 쌓여왔던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극단적 선택과 같은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난 2023년 8월, 전국의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2023 교사 직무관련 마음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3). 그 결과, 유치원 교사의 82%가 업무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속해 있었으며, 심한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유치원 교사는 50%에 달해 영유아교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정신건강 관련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교사의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진 지금,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로 이어지는 영유아 교사의 정신적 웰빙을 증진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하다.

정신적 웰빙(mental well-being)은 개인이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안녕감을 지니고 자신의 전반적인 삶을 지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서와 기분에 대한 평가인 정서적 웰빙(emotional well-being), 개인이 기능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인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개인이 속한 사회에 대한 평가인 사회적 웰빙(social well-being)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Keyes, 2002, 2005). 이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Seligman(2002)이 주장하는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의 세 가지 요소인 즐거운 삶, 적극적인 삶, 의미 있는 삶과 일치한다(권석만, 2008). 이와 더불어 Seligman의 정신건강 모델은 자기실현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중요 사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Allen, 2019; Seligman, 2011), Keyes(2002)에 의해 제시된 정신적 웰빙 개념 역시 인간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이라고 본 인본주의 이론에서 창안된 자기실현적 접근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인본주의 이론의 대표 학자인 Rogers(2009)와 Maslow(2009)는 공통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면서 자기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는 삶이 정신적으로 웰빙한 상태이자 자기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며, 정신적 웰빙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주적으로 잠재력을 발휘하여 좋은 삶을 위해 나아가고자 할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정신적 웰빙을 살펴본 최윤정 등(2020)의 연구에 의하면, 정신적 웰빙 수준이 양호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할수록 자신을 돌보고 조율할 수 있었으며 개인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두통이나 피

로, 불면증과 같은 신체화 증상이 적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회복력 역시 좋았다. 정신적 웰빙은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이전까지는 정신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웰빙을 각각 살펴본 단일 웰빙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단일 웰빙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적 웰빙과 동일한 주관적 안녕감을 높게 인식하는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내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었고(석재경, 김정민, 2020), 심리적 웰빙과 동일한 개념인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유아교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려는 힘을 가졌으며(길현주, 김수영, 2016), 긍정적 정서 상태를 토대로 유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실현하게 되었다(김경란 등, 2016). 이러한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영유아교사가 정신적으로 웰빙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영유아와 교사 자신 모두를 위해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영유아교사의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는 자기개념 명확성(self-concept clarity)을 들 수 있다. 자기개념 명확성은 Campbell(1990)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자기에 관한 내용이나 신념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내적으로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기개념이 명확한 것은 자기에 대한 신념과 가치판단이 분명하고 확실하여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상태이다. 자기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성인은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가 높아 전반적으로 더 활동적이고 협력적인 문제 해결 행동을 보였다(정현희, 이희경, 2013; Bechtoldt et al., 2010). 또한, 영유아교사와 비슷

한 직군인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을수록 사회적 평가에 민감해지므로 조직 내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때 타인의 기대 충족에 곤란을 경험하는 역할 갈등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역할갈등 경험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직무 만족을 저하했으며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신뢰와 호의, 존경과 같은 태도를 낮춰 정서적 소진을 일으켰다(이미연, 2019).

한편, 자기개념은 영유아기에 자기를 의식하는 자아가 생겨나면서 발달하며 인생 전반에 걸쳐 부모, 형제, 교사, 또래 등 주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 인식되고,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Rogers(2009)는 왜곡된 자기개념 형성으로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가진다고 해도 인간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가 학습자에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건강한 자기개념 형성에 조기 개입할 수 있는 영유아교사는 담당하는 영유아가 안정적이고 일관된 자기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자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정신적 웰빙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관심이 충분하지 않아 교사를 대상으로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신적 웰빙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소수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와 타인을 구분하는 분리-개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예비유아교사는 확고한 자기개념을 확립하게 되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도전 과제에서 적절한 대

처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러한 자신감은 교사효능감으로 이어져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잘 기능하고 있다고 느껴 심리적 웰빙 수준이 높아졌다(조성희, 2020). 또한, 영유아교사와 비슷한 직군에 속하는 예비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비일관된 자기개념을 형성한 예비초등교사는 자신의 내적 의미에 집중하지 못하여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가졌다(김종운, 이지혜, 2016). 이러한 결과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심리적 웰빙과 정서적 웰빙을 높여주는 심리적 자원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영유아교사의 정신적 웰빙을 긍정적으로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자기개념 명확성과의 관계를 알아보려 하며, 이는 이후에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신적 웰빙의 기반을 닦을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유아교사의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정서 명확성(clarity of feelings)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서 명확성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이해하는 능력으로 단순히 자신의 기분에 대해 좋고 나쁨을 인식하는 정도가 아닌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정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Gohm & Clore, 2000; Gohm, 2003; Salovey & Mayer, 1990). 정서 명확성은 Salovey 등(1995)이 개발한 특질 상위-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의 하위요인 중 하나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구별하는 능력인 'clarity of feelings'를 뜻한다. 그러나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원칙도의 용어와 달리 'emotional clarity'와 '정서인식 명확성'으로 번역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TMMS를 국내 타당화한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그들의 연

구에서부터 일관성 없이 용어를 혼용하는 오류를 범한 관계로 후속 연구에서도 비판 없이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원칙도 TMMS의 하위요인은 'clarity of feelings'로 인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지 않아 본래의 정의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서 명확성'이라고 번역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보다 교육 및 보육 기관에서 생활하는 영유아가 훨씬 많으며, 이로 인해 영유아교사의 역할에 있어 다른 학령기 교사들보다 안정감과 같은 건강한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유아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 관련된 변인의 메타분석을 한 조재현과 김영희(2017)는 유아의 정서 인식에 부모보다 또래와 교사 변인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정서 명확성이 높은 유아교사는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어 정서표현의 모방 학습의 기회가 되어 유아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차선민, 2012). 이러한 결과로 보아 영유아교사가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영유아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단일 웰빙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서를 명확하게 이해할수록 자기 존재에 대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높아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인식하였을 때 그 정서에서 잘 회복하여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졌으며(박한창, 심혜원, 2019; 심명자, 2022), 자신의 욕구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회피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대응하는 시도를 촉진하여 심리적 웰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일다, 최보영, 2022; Lee, 2020). 이러한 결과는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도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 부정적 정서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어 정신적인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서 명확성은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으므로 교육 및 보육현장에서 심리·정서적으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영유아교사들이 자신의 정서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신적 웰빙과의 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인본주의 이론의 접근에서 인간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이므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은 주변 세계를 새롭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돕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웰빙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자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조직화하는 인지 도식인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보처리과정에서 가장 기초단계에 해당하며 자기의 정서 상태를 스스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인 정서 명확성은 모두 자기 이해와 관련된 변인으로 정신적 웰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서 명확성 간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하며(신수진, 홍혜영, 2014; 장예은 등, 2019; 주찬영, 2021), 최근까지도 두 변인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김정민, 2024; 이영숙, 2023; 장정연 등, 2022; 조은숙, 2023)가 누적되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 고찰 결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정서 명확성에 선행하는 경로와 정서 명확성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선행하는 경로인 상반된 연구 결과가 공존하였다. 상반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이 높은 성인은 자신의 내부에 주의를 기울이므로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를 통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해져 정서 조절 행동을 보이게 되었다(문정숙, 최해연, 2020; 황소영, 2020).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성인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높으므로 명확하고 안정적인 자기개념 형성을 도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김동희, 2023; 차미애 등, 2022). 즉 정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서조절을 돕기 때문에 일관된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내면의 정보와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므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우며(문정숙, 최해연, 2020; 황소영, 2020), 이러한 정서 명확성은 정서 반응의 조절을 도와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이끌어 정신적 웰빙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이서정, 현명호, 2008). 즉 자기개념 명확성은 정서 명확성을 통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시에, 정서 명확성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정서 조절이 가능해져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이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 일관된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다(이소연, 김규연, 2021; 차미애 등, 2022). 일관된 자기개념을 지닐수록 자신이 느끼는 정서와 판단으로 심리적 문제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므로(문경하, 2007) 정신적으로 웰빙한 사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즉 정서 명확성은 자기개념을 통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근거로 자기개념 명확성이 정서 명확성을 통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과 정서 명확성이 자기개념 명확성을 통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 두 가지를 설정해 어느 경로가 영유아교사의 정신적 웰빙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정신적 웰빙에 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직 중인 담임교사 240명으로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영유아교사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의 응답자도 여성이 226명(9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급은 평균교사가 215명(89.6%)으로 부장(주임)교사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영유아교사의 연령은 만 31~40세(53.4%)가,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55.8%)이 가장 많은 응답항목을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의 73%가 수도권에 재직중이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력을 모두 포함한 영유아교사의 총 경력은 3~5년 미만이 91명(37.9%), 5~8년 미만이 55명(22.9%)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응답한 영유아교사의 약 90%가 하루 평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연구도구

정신적 웰빙

영유아교사의 정신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Keyes 등(2008)이 개발한 정신적 웰빙 척도의 축약형(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MHC-SF)을 임영진 등(2012)이 원 개발자인 Keyes에게 사용승인을 받아 번역, 역 번역, 동일성 평정 과정을 거쳐 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정신적 웰빙 척도의 한국어판(Korean version of the 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K-MHC-SF)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정서와 기분에 대한 평가인 정서적 웰빙 3문항(예: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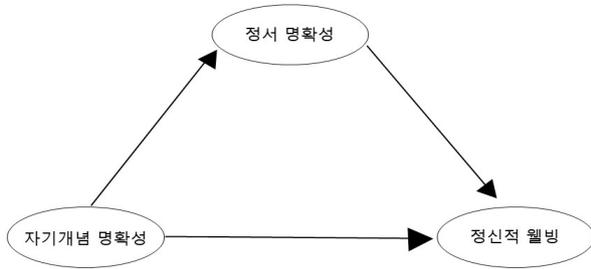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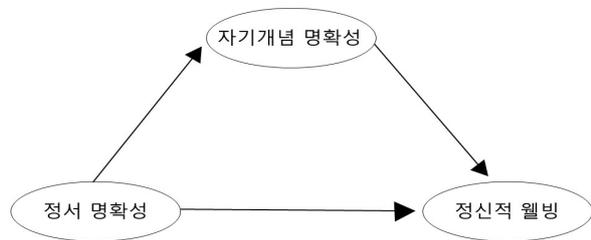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2

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하며, 영유아교사의 정신적 웰빙 증진을 통해 영유아와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1은 그림 1과 같고 연구모형2는 그림 2와 같다.

연구문제 1. 영유아교사의 자기개념 명확성, 정서 명확성, 정신적 웰빙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유아교사의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신적 웰빙과의 관계에서 정서 명확성의 매개효과는 있는가? (연구모형1)

연구문제 3. 영유아교사의 정서 명확성과 정신적 웰빙과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는 있는가? (연구모형2)

표 1.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N = 240)

구분	항목	n(%)	구분	항목	n(%)
성별	남	14(5.8)	직급	평교사	215(89.6)
	여	226(94.2)		부장(주임)교사	25(10.4)
연령	만 20~30세	102(42.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3(1.3)
	만 31~40세	128(53.4)		2.3년제 대학 졸업	89(37.1)
	만 41세 이상	10(4.2)		4년제 대학 졸업	134(55.8)
교사 경력	3년 미만	49(20.4)	기관 소재지	대학원 이상 (과정생 포함)	12(5.0)
	3~5년 미만	91(37.9)		기타	2(0.8)
	5~8년 미만	55(22.9)		서울	85(35.4)
	8~10년 미만	25(10.4)		경기	90(37.5)
	10년 이상	20(8.4)		강원	6(2.5)
하루 평균 근무 시간	8시간 이하	22(9.2)	충청	6(2.5)	
	8~9시간 미만	133(55.4)	전라	9(3.8)	
	9~10시간 미만	58(24.2)	경상	44(18.3)	
	10~11시간 미만	25(10.4)	제주	0(0)	
	11시간 이상	2(0.8)			

복감을 느꼈다.’), 개인이 속한 사회에 대한 평가인 사회적 웰빙 5문항(예: ‘우리 사회가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개인이 기능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인 심리적 웰빙 6문항(예: ‘내 삶이 방향감이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의 3가지 하위요인의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의 경험을 ‘전혀 없음(0점)’에서 ‘매일(5점)’의 6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안녕감을 지닌 상태를 의미한다. 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유아교육과 교수 3인에게 검증 받았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정서적 웰빙이 .83, 사회적 웰빙이 .82, 심리적 웰빙이 .9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3이었다.

자기개념 명확성

영유아교사의 자기개념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Campbell 등(1996)이 개발한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 SCCS)를 김대익(1998)이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문항 재검증을 위해 본 연구자가 번역을 한 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역번역 과정을 거쳐 완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잠재변수와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표준화 계수의 값이 .50미만인 3개의 문항(3번, 6번, 7번)을 제거하였으며 총 9문항(예: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이 매우 자주 바뀌는 것 같다.’)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역채점 문항은 역코딩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이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에 대한 개념이 일관 되고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완성된 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유아교육과 교수 3인에게 검증받았으며 최종 채택된 연구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88이었다.

정서 명확성

영유아교사의 정서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등(1995)이 개발한 특질 상위-기분 척도 (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한국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변안하여 국내 타당화한 척도 가운데 자신이 주의 집중한 정서를 명확하게 경험하는 정서 명확성에 대한 11문항(예: '나는 거의 늘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히 안다.')만을 추출하여 사용했다. 잠재요인별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표준화 계수의 값이 .50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3개의 문항(3번, 5번, 11번)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총 8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역채점 문항은 역코딩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이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명확하게 경험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유아교육과 교수 3인에게 검증받았으며 최종 채택된 연구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88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P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심의를 신청하여 연구승인(PNU

IRB/2023_13_HR)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영유아교사가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설문지 URL을 탑재하였으며,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필요성, 목적, 진행절차, 철회방법, 개인정보보호와 익명처리 등에 대한 설명을 전달하였다.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았으며 설문이 완료된 후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2023년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5~7분이었으며 문항의 이해도 등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설문지를 최종으로 확정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23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온라인 설문 제작 시 모든 문항을 필수문항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회수율은 100%였으며, 중복 및 부실 응답 역시 발견되지 않아 회수된 240부는 모두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자료분석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주요 변인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SPSS version 27.0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본집단의 정규분포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산출하여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변인들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version 26.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서 명확성 척도는 3개의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생성하였다.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서 명확성은 하나의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진 단일요인 척도로 이러한 경우엔 측정오차가 증가하여 모형 적합도가 적절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때 문항 묶음을 활용하면 자료의 정규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모수추정이 가능해지며, 측정변수를 축소하여 모형의 간명화가 가능해 모형 적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Little et al., 2002; Masaki, 2008).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1과 연구모형2의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Amos version 26.0을 이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NFI, TLI, RMSEA, CFI 등의 지수를 산출하여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각 경로계수와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와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와의 통계적 유의성은 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결 과

영유아교사의 자기개념 명확성, 정서 명확성 및 정신적 웰빙의 수준

영유아교사의 자기개념 명확성, 정서 명확성 및 정신적 웰빙의 수준을 알아본 결과, 표 2와 같이 자기개념 명확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17점($SD = .68$), 정서 명확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47점($SD = .66$)으로 나타나 중간값인 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신적 웰빙은 5점 만점인 6점 척도로 전체 수준은 평균 2.61점($SD = .87$)으로 중간값인 2.5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교사는 지난 한 달 동안 대략 1주에 1~3번 정서, 심리, 사회적 안녕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웰빙 수준이 가장 높았고($M = 2.80, SD = .95$), 심리적 웰빙($M = 2.70, SD = .96$), 사회적 웰빙($M = 2.41, SD = .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구조

표 2. 영유아교사의 자기개념 명확성, 정서 명확성 및 정신적 웰빙의 수준 및 상관관계 (N = 240)

하위요인	1	2	3	4	5	6
1. 자기개념 명확성	1					
2. 정서 명확성	.74**	1				
3. 정신적 웰빙	.41**	.43**	1			
4. 정서적 웰빙	.38**	.39**	.84**	1		
5. 사회적 웰빙	.28**	.27**	.91**	.69**	1	
6. 심리적 웰빙	.44**	.49**	.94**	.71**	.74**	1
<i>M</i>	3.17	3.47	2.61	2.80	2.41	2.70
<i>SD</i>	.68	.66	.87	.95	.95	.96
왜도	.06	.13	-.15	-.16	-.08	-.04
첨도	-.80	-.90	-.26	-.11	-.32	-.49

** $p < .01$.

방정식에서 활용하는 변수는 정규분포를 가정해야 하며 정규성은 왜도와 첨도를 통해 확인하는데, 왜도는 절댓값 2 미만, 첨도는 절댓값 4 미만일 경우에 정규분포 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Hong et al., 2003).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왜도는 -.16 ~ .13에 첨도는 -.90 ~ -.11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표본집단이 정규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유아교사의 자기개념 명확성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서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분석을 통해 각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서 명확성, 정신적 웰빙 하위요인 간의 모든 상관관계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정신적 웰빙 전체와 정신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심리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r = .94, p < .01$)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정신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웰빙과 정서 명확성 간의 상관관계($r = .27, p < .01$)는 가장 낮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기개념 명확성과도 상관관계가 있으나 낮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 = .28, p < .01$).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교사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신념을 일관되게 유지할수록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기능을 실현하는 것과 더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Limit; TOL)는 .42로 기준값인 0.1 이상에 충족하였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은 2.39로 기준값인 10 미만에 충족(황해익 등, 2016)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versio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장 먼저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측정모형 적합도지수 중 검증에 많이 활용하는 χ^2 (CMIN), NFI, TLI, CFI, RMSEA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χ^2 (CMIN)은 p 값이 .05 이상이면 적합, NFI, TLI, CFI의 값은 .90 이상이면 적합, RMSEA의 값은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5 ~ .08 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는 적당한 적합도, .10보다 크면 부적절한 적합도라고 본다(김원표, 2017).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3과 같이 $\chi^2 = 1447.752(df = 626, p < .001)$, NFI = .721, TLI = .807, CFI = .818, RMSEA = .074로 측정모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모형이 부적합할 경우, 결과 해석이 불가하고 해석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측정모형이 적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허준, 2013). 따라서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표준화 계수(β)

표 3. 수정된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NFI	TLI	CFI	RMSEA
기준값	-	-	≥.90	≥.90	≥.90	<.10
측정모형	56.618***	24	.966	.970	.980	.075

*** $p < .001$.

와 비표준화 계수(B)의 값을 점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측정변수를 제거하였다. 잠재변수와 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자기개념 명확성 6번 문항과 정서 명확성 3번, 5번 문항을 제거하였고, 표준화 계수의 값이 .50 미만인 자기개념 명확성 3번, 7번 문항과 정서 명확성 11번 문항을 추가로 삭제하여 총 6개의 문항을 제거하였다.

측정모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지표변수의 수를 예상할 수 있다. 하나의 구성개념에 많은 항목을 관측변수로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경우 측정오차와 모델의 복잡성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잠재변수간 상관 측정이 불가하므로 모델 적합도나 판별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우종필, 2015). 이때 문항 묶음을 통해 지표변수를 줄이게 되면 모형을 간소화할 수 있어 모형 적합도를 높일 수 있으며 더불어 측정값을 더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게 된다(Little et al, 2002).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요인으로 확인되었던 자기개념 명확

성과 정서 명확성에 대해 문항 묶음을 실시하였다. 문항 묶음 방법 중 연구도구가 일차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임의할당 방법(random assignment)을 활용하였으며, 문항을 임의할당 하게 될 경우 생성된 새 지표변수에는 배치된 문항의 모든 특성이 통계적으로 골고루 분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문수백, 2009). 새 지표변수 생성 시 측정변수가 3개 미만일 경우에는 관측변수의 타당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일반적으로 3~4개를 권장하고 있다(홍세희, 정송,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서 명확성 변수를 각각 3개의 문항 묶음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수정된 측정모형의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확인한 결과 표 3과 같이 $\chi^2 = 56.618(df = 24, p < .001)$, NFI = .966, TLI = .970, CFI = .980, RMSEA = .075로 나타나 수정된 모형이 기준에 부합하는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합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표 4. 수정된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Estimate		z	$S.E.$	AVE	$C.R.$
		B	β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개념 명확성 묶음1	1.00	.88				
	자기개념 명확성 묶음2	.99	.89	18.73	.05***	.75	.90
	자기개념 명확성 묶음3	.99	.84	16.90	.06***		
정서 명확성	정서 명확성 묶음1	1.00	.92				
	정서 명확성 묶음2	.89	.87	19.84	.05***	.75	.90
	정서 명확성 묶음3	.76	.81	17.09	.05***		
정신적 웰빙	정서적 웰빙	1.00	.80				
	사회적 웰빙	1.70	.82	13.78	.12***	.72	.89
	심리적 웰빙	2.30	.91	14.96	.1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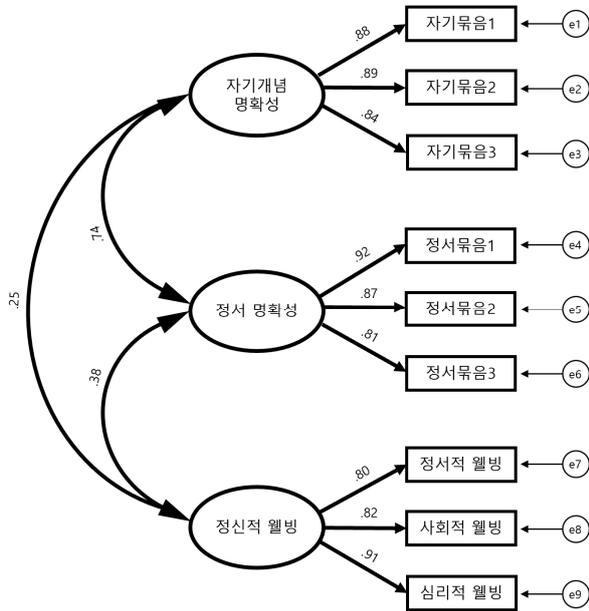


그림 3. 수정된 측정모형의 확인적요인분석 결과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기개념 명확성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beta = .84 \sim .89$)과 정서 명확성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beta = .81 \sim .92$), 정신적 웰빙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beta = .80 \sim .91$)은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기준치인 .50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개념타당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측정변수의 검정통계량(Critical Ratio; C.R.)값도 모두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은 해당 잠재 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집중타당도 검증을 위해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와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분석을 통해 측정 모형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평가한 결과, AVE 값은 .5 이상, CR 값은 .7 이상이면 적합하다(이학식, 임지훈, 2008)는 기준에서 수용 기준치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z 값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서 명확성을 각 3개의 측정변수로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수정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영유아교사의 자기개념 명확성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서 명확성의 매개효과(연구모형1)

연구모형1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구조경로 추정치를 살펴보면, 자기개념 명확성에서 정서 명확성으로 가는 경로($\beta = .88, p < .001$)와 정서 명확성에서 정신적 웰빙으로 가는 경로($\beta = .43, p < .05$) 모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

표 5. 연구모형1 경로계수 분석

경로	Estimate		S.E.	t	R ²
	B	β			
자기개념 명확성 → 정서 명확성	.97	.88	.06	15.97***	.742
정서 명확성 → 정신적 웰빙	.39	.43	.15	2.53*	.313
자기개념 명확성 → 정신적 웰빙	.14	.14	.17	.85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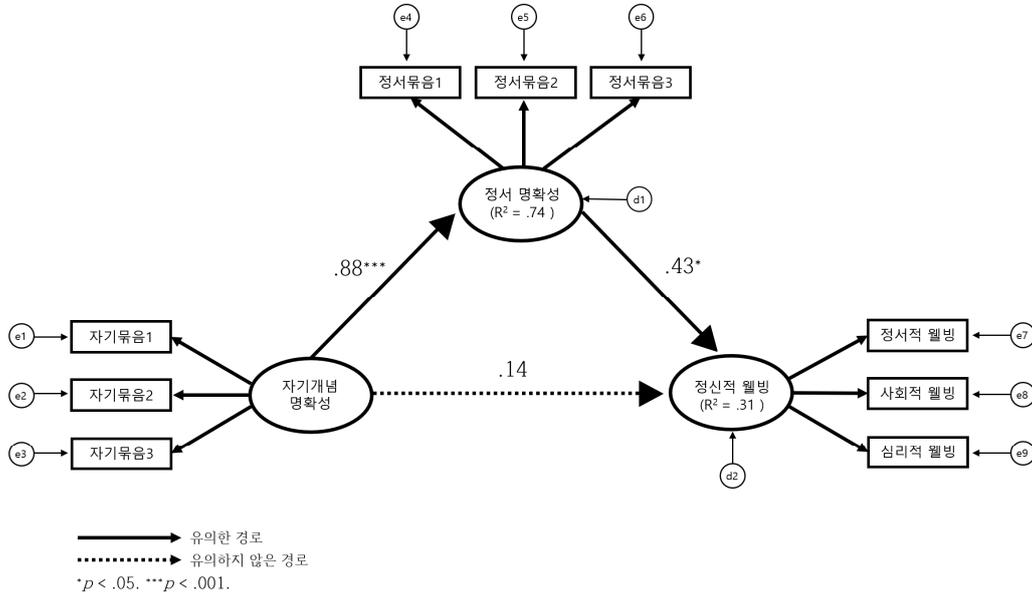


그림 4. 연구모형1 경로

치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교사의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서 명확성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자기개념 명확성에서 정신적 웰빙으로 가는 경로의 경우 유의하지 않아($\beta = .14, p > .05$) 영유아교사의 자기개념 명확성은 정서 명확성을 통해서만 정신적 웰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교사의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서 정서 명확성의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영유아교사가 자기에 대해 내적·외적으로 일관된 신념을

지닐수록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이는 개인의 삶에 만족감과 긍정 정서를 느끼고 자신이 속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며 생활하게 됨을 의미한다.

영유아교사의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예상되는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서 명확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변수들 간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 내 변인들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나타내는 경로 효과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연구모형1의 경로 효과를 살펴보면 자기개념 명확성은

표 6. 연구모형1의 효과분석

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자기개념 명확성 → 정서 명확성	.88**		.88**
정서 명확성 → 정신적 웰빙	.43*		.43*
자기개념 명확성 → 정서 명확성 → 정신적 웰빙	.43*	.38*	.52**

* $p < .05$, ** $p < .01$.

표 7. 연구모형1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Estimate	S.E.	95% 신뢰구간	
			lower	upper
자기개념 명확성 → 정서 명확성 → 정신적 웰빙	.38	.16	.05	.74

정신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beta = .14, p > .05$), 자기개념 명확성이 정서 명확성을 거쳐 ($\beta = .88, p < .01$) 정신적 웰빙에 정적인 간접효과 ($\beta = .38, p < .05$)를 보여 .52의 총 효과를 보였다 ($p < .01$). 마지막으로 영유아교사의 자기개념 명확성에서 정신적 웰빙으로 가는 직접경로뿐 아니라 매개 변수인 정서 명확성을 거쳐 가는 간접 경로도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정서 명확성의 매개효과는 .38로,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05에서 상한 .74값을 보이고 있어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영가설을 기각하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정서 명확성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영유아교사의 자기개념 명확성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정신적 웰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정서 명확성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정신적 웰빙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유아교사의 정서 명확성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연구모형2)

영유아교사의 정서 명확성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2의 모형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1과 동치모형으로 나타났다. 설정한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구조경로 추정치를 살펴보면, 정서 명확성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으로 가는 경로 ($\beta = .88, p < .001$)와 정서 명확성에서 정신적 웰빙으로 가는 경로 ($\beta = .43, p < .05$)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개념 명확성에서 정신적 웰빙으로 가는 경로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beta = .14, p > .05$). 잠재변수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정서 명확성은 정신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 ($\beta = .43, p < .05$)을 미쳤으나 자기개념 명확성을 거쳐

표 8. 연구모형2 경로계수 분석

경로	Estimate		S.E.	t	R ²
	B	β			
정서 명확성 → 자기개념 명확성	.80	.88	.05	15.84***	.741
자기개념 명확성 → 정신적 웰빙	.14	.14	.17	.85	.313
정서 명확성 → 정신적 웰빙	.39	.43	.16	2.53*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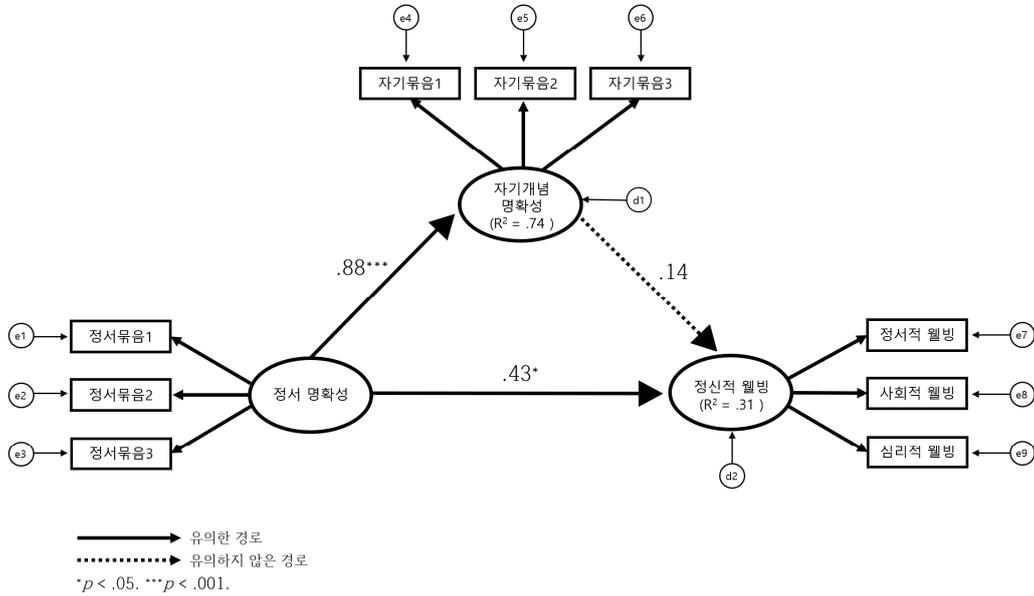


그림 5. 연구모형2 경로

표 9. 연구모형2의 효과분석

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정서 명확성 → 자기개념 명확성	.88**		.88**
자기개념 명확성 → 정신적 웰빙	.14		.14
정서 명확성 → 자기개념 명확성 → 정신적 웰빙	.43*	.13	.56**

* $p < .05$, ** $p < .01$.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beta = .13$, $p > .05$).

다음으로 연구모형2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는 .12로 나타났고,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22에서 상한 .42값을 보여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였기에 연구모형2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영유아교사의 정서 명확성이 정신적 웰빙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개념 명확성을 경유

하여 정신적 웰빙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자기개념 명확성, 정서 명확성, 정신적 웰빙의 수준을 알아보고, 자기개념 명확성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서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모형과 정서

명확성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인 두 개의 모형을 구축한 후, 어느 경로가 영유아교사의 정신적 웰빙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직 중인 전국의 담임교사 240명을 임의 무선표집하였으며, 분석한 자료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자기개념 명확성, 정서 명확성, 정신적 웰빙은 모두 보통인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기개념 명확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17점($SD = .68$)으로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수준을 확인할 수 없어 본 연구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비율과 유사한 20~3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개념 명확성이 중간 수준($M = 3.21$)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양혜지, 2022). 더불어 교육 현장에 종사하며 초·중·고등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관련 활동을 하는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들의 자기개념 명확성이 중간 수준을 보여 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이미연, 2019).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자기개념을 명확하게 할수록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개인의 내·외적 심리적 갈등은 낮아지고 맡은 직무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교육개혁이나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교사가 중간 수준의 자기개념 명확성을 보인 것은 이들이 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로서 조직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정서 명확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47점으로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유아교사의 정서 명확성이 중간 수준($M = 3.83$)임을 보고한 차선민(201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에서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정서 인식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김성은, 최선영, 2022; 우수경, 2023)와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정서지능이 높아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영유아교사일수록 긍정적인 정서는 유지하고 부정적인 정서는 조절하여 영유아와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음을 밝힌 연구(김보경, 이경남, 2016; 김인희, 김진경, 2020)와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구체적으로 구분할수록 정서 상태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를 활용하고 조절하게 되었다는 Barrett 등(2001)의 연구 결과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서 조절의 선행 단계로, 영유아교사가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할수록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게 되어 담당하는 영유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교사의 정신적 웰빙은 5점 만점인 6점 척도로 평균 2.61점으로 전반적인 수준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신적 웰빙의 선행연구 수가 부족하여 정신적 웰빙 수준을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 보면, 영유아교사의 정신적 웰빙 수준은 직업군인 혹은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웰빙(강찬조, 2012; 김유호 등, 2019; 황보은, 김완일, 2020)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직업적 특성에 따른 성차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

다. 교육 및 보육기관에 종사하는 영유아교사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2; 양미선 등, 2021), 군인,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는데(인사혁신처, 2022), 정신건강 측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우울증, 불안장애, 기분장애 등을 경험하는 경향이 더 높다(전진아, 2016; WHO, 2002). 따라서 영유아교사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신적 웰빙 수준을 보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영유아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영유아교사의 정신건강은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밀접하다. 따라서 정신적 웰빙의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한 영유아교사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 연수를 통해 이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행동상의 문제와 직결되며 영유아교사의 정신건강 상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서동미, 연선영, 2016). 유년기에 경험하는 학대나 불안과 같은 정서는 정신장애를 유발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하혜주, 심은정, 2021; Teicher & Samson, 2013)는 일관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영유아교사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의 정신건강과도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유아교사의 정신건강 유지 및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이를 지원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모형1로 설정했던 자기개념 명확성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서 명확성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자기개념 명확성이 정서 명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문정숙, 최해연, 2020; 황소영, 2020)와 영유아교사가 자신의 정서 상태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할수록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고, 개인의 삶과 교직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도록 촉진함과 더불어 주관적,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쳐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한다는 선행연구(신현정 등, 2016; Li & Zhang, 2021; Pan et al., 2022)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정서 명확성에서 정신적 웰빙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였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자기개념 명확성에서 정신적 웰빙으로 가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적 웰빙의 하위요인에 자기개념 명확성이 직접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의 일관된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지윤, 이동귀, 2013; 이기재, 최해림, 2009; 조은영, 임성문, 2012)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의 선행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 목적에 맞게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예민하지만 정확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회귀분석과는 달리 최대우도법에 의하여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추정하는 것이 가능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학식, 임지훈, 2008). 반면, 각종 모형 적합도 기준을 충족해야만 유의한 해석이 가능하며 각 문항의 측정오차를 고려하므로 변수 간 상관관계가 충분히 높아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 등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석 방법은 간단하지만 덜 예민하고 정확도는 비교적 높은 Hayes(2013)가 제안

한 Process macro를 최근에는 많이 활용하는 추세이다. Process macro는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에 비해 분석 방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형의 적합도 면에서는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

한편, 분석 방법을 달리해 사용이 용이하고, 덜 예민한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적용하여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서 정서 명확성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결과와는 달리 자기개념 명확성이 정신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예민한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것이 두 변인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중요한 요인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없기에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연구모형2로 설정한 정서 명확성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은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영유아교사의 정신적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먼저 향상한 후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더 높은 수준의 정신적 웰빙 상태에 이를 수 있게 이끌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 간의 관계에서 도출된 결과이므로, 선행요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 및 논의를 반영하여 도출한 본 연구

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두 예측 변인의 선후관계를 달리한 두 개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비교를 시도한 연구로써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서 명확성간의 상관관계 확인에 머물렀던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영유아교사의 정신적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여 두 변인의 간접효과 유무를 확인하였다는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최근에는 조직문화에서 조직구성원의 정신질환 유무 혹은 스트레스나 소진 수준보다는 구성원의 정신적 웰빙에 주목하고 있다(강찬조, 2012; 유재두, 2020).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조직을 이루고 있는 영유아교사 집단에서도 심리적 웰빙이나 주관적 웰빙과 같은 각각의 단일 변인들이 독립적으로 연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웰빙을 포함한 통합적 개념인 정신적 웰빙에 관한 연구를 통해 웰빙의 다각적 요소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단일 차원의 웰빙을 연구하였던 그동안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정신적 웰빙이라는 통합적인 웰빙을 중심으로 영향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영유아교사가 이용하는 전국 대상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온라인 자료수집을 하였으나, 통계적 분포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의 73%가 수도권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집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에 대한 과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연구 변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근무 소재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표집한다면 더욱 대표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과반수 이상의 영유아교사가 하루 평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결과에서 영유아교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의 정신적 웰빙 증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 형태와 시간을 구분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향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인의 차원성에 적합한 문항 묶음 방법을 채택하여 적합도를 향상하였으나, 적합도의 향상이 진정한 모형(true model)임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이지현, 김수영, 2016)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해석에 있어 더욱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항 묶음의 개수를 3개로 만들었으나 표본 수, 연구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한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서 명확성을 각각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비교해 봤을 때 연구모형1만이 자기개념 명확성이 정서 명확성을 거쳐 정신적 웰빙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조사 방법으로 자기 보고식 질문지 형식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응답자의 반응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후속 연구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심층 면담을 구성하여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거나, 변인의 인과관계를 더욱 확실하게 파악

하기 위한 관찰이나 실험 방식의 연구 혹은 변인의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강찬조 (2012). **경찰공무원의 정신적 웰빙이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전투·의무경찰포함)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일다, 최보영 (2022). 마음챙김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 명확성과 문제 중심 대처의 순차적 이중매개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1), 143-155.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21.143>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2). **2022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과.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길현주, 김수영 (2016). 유아 교사의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 25(2), 201-220.
<https://doi.org/10.17643/KJCE.2016.25.2.09>
- 김경란, 오재연, 박경, 장지영 (2016). 유아교사의

-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유아, 교사-부모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1(4), 277-300.
- 김대익 (1998). **한국인의 자아개념 명료성에 대한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희 (2023).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개념명확성의 이중매개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경, 이경님 (2016). 원장의 코칭리더십과 유아 교사의 정서지능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5(1), 109-133.
- 김성은, 최선영 (2022). 유아교사의 정서지능, 회복탄력성, 그릿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 511-529.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2.511>
- 김원표 (2017). **구조방정식 모델분석**. 서울: 와이즈인 컴퍼니.
- 김유호, 이주호, 이민규, 권설아, 김다영, 조미정, 오명근, 류상일 (2019). 공공부문 종사자의 정신적 웰빙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회지**, 8(1), 161-177.
<https://doi.org/10.24826/KSCS.8.1.12>
- 김인희, 김진경 (2020). 유아교사의 정서지능, 직무만족도와 교사효능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7), 1075-1100.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7.1075>
- 김종운, 이지혜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예비 초등교사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1-26.
- 김정민 (2024). **아동기 대인간 외상경험이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윤, 이동귀 (2013).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4(1), 63-82.
- 문경하 (2007). **자기개념명확성과 자의식이 주관적 안녕감 및 평가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정숙, 최해연 (2020). 수치심과 정서인식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1695-1713.
<https://doi.org/10.23844/kjcp.2020.11.32.4.1695>
- 박한창, 심혜원 (2019). 대학생의 정서인식 명확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4), 267-291.
<https://doi.org/10.21509/KJYS.2019.04.26.4.267>
- 백경흔, 정진주 (2020). **보육교사 건강문제와 대안을 찾아서**. 사회건강연구소. 2020 연구보고서-1
- 서동미, 연선영 (2016).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영유아학대에 대한 인식과 영유아학대 실제행동에 대한 자기평가와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20(1), 193-216.
- 석재경, 김정민 (2020).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직

- 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인과적 관련성. **가정과삶의질연구**, 38(2), 143-159.
<https://doi.org/10.7466/JKHMA.2020.38.2.143>
- 신수진, 홍혜영 (2014).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1(4), 95-116.
- 신현정, 신동주, 김승옥 (2016). 보육교사의 정서성과 심리적 안녕감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20(5), 177-200.
- 심명자 (2022). 성인의 정서인식 명확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6), 829-844.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6.829>
- 양혜지 (2022). 20~30대 성인의 자기개념 명확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수경 (2023). 영아교사의 자아탄력성, 정서지능 및 사회적 지지와 민감성 간의 구조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4), 733-747.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4.733>
- 우종필 (2015). 구조방정식모델에서 다차원성 개념의 항목묶음 편향에 대한 연구. **경영학연구**, 44(4), 1131-1147.
- 유재두 (2020). 해양경찰공무원의 정신적 웰빙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3), 135-160.
<https://doi.org/10.21181/KJPC.2020.29.3.135>
- 이기재, 최해림 (2009). 분리-개별화, 자기개념 명확성 및 비합리적 신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30(2), 81-99.
- 이미연 (2019).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서정, 현명호 (2008).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887-905.
- 이소연, 김규연 (2021).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으로 조절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2(5), 299-321.
<https://doi.org/10.15703/kjc.22.5.202110.299>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이영숙 (2023). **부모의 혼인상태가 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개념명확성의 매개효과**. 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https://doi.org/10.22257/kjp.2016.06.35.2.327>
- 이학식, 임지훈 (2008).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7.0**. 서울: 법문사.
- 이혜란, 김진이, 김소연 (2017). **아동과 교사를 위한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인사혁신처 (2022). **2022 인사혁신통계연보**. 발간등록번호: 11-1760000-000011-10

-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 (2012). 정신적 웰빙 척도(MHC-SF)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69-386.
- 장정연, 오인수, 반지윤 (2022). 중국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8(2), 217-242.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3). 2023 교사 직무관련 마음건강 실태조사.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34102&page=2&menu_id=2010에서 2023년 9월 10일 인출.
- 전진아 (2016). 지표로 보는 한국여성의 정신건강. 보건복지포럼(2016.05).
- 장예은, 김향미, 김혜정 (2019). 귀국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 자기개념 명확성, 정서인식 명확성,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6), 1197-1214.
- 정현희, 이희경 (2013). 상담자의 완벽성향과 주관적 안녕감, 우울의 관계: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3023-3040.
- 조성희 (2020). 예비유아교사의 분리-개별화,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개념 명확성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연구집**, 24(6), 101-125.
<https://doi.org/10.32349/ECERR.2020.12.24.6.101>
- 조은숙 (2023).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역기능적 분노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개념명확성의 이중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영, 임성문 (2012). 자아해석과 주관적 안녕감 및 우울간의 관계: 인지적 유연성,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와 자기복잡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493-519.
- 조재현, 김영희 (2017).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정서 발달에 관련된 변인의 메타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3), 253-275.
<https://doi.org/10.22155/JFECE.24.3.253.275>
- 주찬영 (2021).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불만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미애, 송유정, 권성혜, 장정주 (2022). 핵심감정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 자기개념명확성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8(1), 79-102.
<https://doi.org/10.33770/JEBD.38.1.4>
- 차선민 (2012). **교사의 정서명확성 및 정서표현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 한유진, 이해지 (2020). 성인놀이성, 신체화, 정신적 웰빙 및 자기돌봄 간 구조모형 분석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24, 23-44.
<https://doi.org/10.37918/kce.2020.09.124.23>
- 하혜주, 심은정 (2021).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의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한국청소년 연구**, 32(4), 65-95.
<https://doi.org/10.14816/sky.2021.32.4.65>
- 허준 (2013).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 한나래.
- 홍세희, 정송 (2014).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이론과 절차. **인간**

- 발달연구, 21(4), 1-24.
<https://doi.org/10.15284/kjhd.2014.21.4.1>
- 황보은, 김완일 (2020). 군 초급간부의 긍정심리자
본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
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8), 257-278.
<https://doi.org/10.21509/KJYS.2020.08.27.8.257>
- 황소영 (2020). **자기개념명확성과 정서인식명확성
및 공감기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해익, 송연숙, 최혜진, 손원경 (2016). **쉽게 배우
는 SPSS 자료분석**. 서울: 공동체.
- Allen, J. B. (2019). **행복심리학: 사회심리학적 접
근**. 김정호, 김선주, 김완석, 박경순, 안귀여루,
최상섭(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본 발간
일, 2017)
- Barrett, L. F., Gross, J., Christensen, T. C.,
& Benvenuto, M. (2001). Knowing what
you're feeling and knowing what to do
about it: Mapping the relation between
emotion differentiation and emotion
regulation. *Cognition and Emotion*, 15(6),
713-724.
<https://doi.org/10.1080/02699930143000239>
- Bechtoldt, M. N., De Dreu, C. K. W., Nijstad,
B. A., & Zapf, D. (2010). Self-Concept
clarity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78(2),
539-574.
<https://doi.org/10.1111/j.1467-6494.2010.00626.x>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38-549.
<https://doi.org/10.1037/0022-3514.59.3.538>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https://doi.org/10.1037/0022-3514.70.1.141>
- Gohm, C. L. (2003). Mood regul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594-607.
<https://doi.org/10.1037/0022-3514.84.3.594>
- Gohm, C. L., & Clore, G. L. (2000).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 experience:
Mapping available scales to process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6), 679-697.
<https://doi.org/10.1177/0146167200268004>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
654.
<https://doi.org/10.1177/0013164403251332>

- Keyes, C. L. M. (2002). The Mental Health Continuum: from languishing to flourishing in lif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Research, 43*, 207-222.
<https://doi.org/10.2307/3090197>
- Keyes, C. L. M. (2005). Mental illness and/or mental health? Investigating axioms of the complete state model of heal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3), 539-548.
<https://doi.org/10.1037/0022-006X.73.3.539>
- Keyes, C. L. M., Wissing, M., Potgieter, J. P., Temane, M., Kruger, A., & Rooy, S. (2008). Evaluation of the Mental Health Continuum - Short Form (MHC - SF) in setswana speaking South African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5*(3), 181-192.
<https://doi.org/10.1002/cpp.572>
- Lee, Y. J. (2020).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emotional perception clarity. *Medico-Legal Update, 20*(1), 2149-2154.
<https://doi.org/10.37506/mlu.v20i1.699>
- Li, Y., & Zhang, H. (2021). A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work pressur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of kindergarten teachers. *Revista de Cercetare si Interventie Sociala, 73*, 22-33.
<https://doi.org/10.33788/rcis.73.2>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https://doi.org/10.1207/S15328007SEM0902_1
- Masaki, M. (2008).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primer. *Communication Methods & Measures, 2*(4), 260-293.
<https://doi.org/10.1080/19312450802458935>
- Maslow, A. H. (2009). **동기와 성격**. 오혜경(역), 파주: 21세기북스. (원본 발간일, 1954년)
- Pan, B., Wu, H., & Zhang, X. (2022). The effect of trait mindfulness on subjective well-being of kindergarten teachers: The sequential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work-family balance.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15*(15), 2815-2830.
<https://doi.org/10.2147/PRBM.S381976>
- Rogers, C. R. (2009). **진정한 사람되기**. 주은선(역), 서울: 학지사. (원본 발간일, 1961년)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https://doi.org/10.2190/DUGG-P24E-52WK-6CDG>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W.

-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pp. 125-15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 Seligman, M. E. P. (2011). **플로리시**. 우문식, 윤상운(공역). 경기: 도서출판 물푸레. (원본 발간일, 2011년)
- Teicher, M. H., & Samson, J. A. (2013). Childhood maltreatment and psychopathology: A case for ecophenotypic variants as clinically and neurobiologically distinct subtyp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0*(10), 1114-1133.
<https://doi.org/10.1176/appi.ajp.2013.12070957>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June). *Gender and mental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iris.who.int/handle/10665/68884>
accessed 10 May 2024.

Comparison of Pathways to Self-Concept Clarity and Clarity of Feelings Affecting Mental Well-Being of Early Childhood Educators

Ji-Hye Kam¹

Jin-Young Chae²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h.D. Candidate¹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²

In this study,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clarity, clarity of feelings, and the mental well-being of 240 early childhood educators.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7 and Amos 26. We found that participants' self-concept clarity, clarity of feelings, and mental well-being were relatively above average. Clarity of feelings was found to complete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clarity and mental well-being; however, self-concept clarity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larity of feelings and mental well-be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early childhood educators should improve their self-concept clarity through clarity of feelings to improve their mental well-being.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provides a baseline that could inform early childhood educators about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mental well-being.

Keywords : early childhood educators, mental well-being, self-concept clarity, clarity of feelings